



UPDATE

멕시코나 항공 원 월드 가입



멕시코는 세계에서 11 번째로 인구가 많고, 13 번째의 경제 규모, 매년 2100 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 8 번째의 관광지로 원 월드는 이미 멕시코

13 곳의 관문 공항으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독립 기념일 축하 행사로 2010 년은 기념비적인 멕시코 방문의 해가 될 것입니다.

매년 9 월 15 일, 멕시코 인들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멕시코 전역의 도시 광장에는 기쁨에 넘치는 수 많은 인파로 가득 찹니다. 독립 기념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시장의 '멕시코 만세'의 환호와 함께 축제는 열기는 정점에 달합니다.

2010 년은 멕시코 독립 200 주년이자 혁명 100 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어느 해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이 기념비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행사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선 히스패닉, 스페인, 세계 주요 도시의 현대 멕시코 예술, 역사의 자취 등을 다룬 전시회 및 각종 쇼, 출판,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30 여 개의 박물관을 개축하여 과거 100 년, 200 년 전의 다채로웠던 멕시코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축하하는 장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0 년은 멕시코를 축하하고 방문하는 멋진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역의 선두 항공사인 멕시코나 항공이 세계 최고의 항공 동맹체인 원 월드에 11 월 공식으로 가입했습니다.

멕시코나 항공은 원 월드의 일원으로서 비행을 시작하고, 그들의 고객과 새로운 원 월드 회원사의 고객들에게 모든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회사인 클릭 멕시코나 항공도 동시에 원 월드 계열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멕시코나 항공은 멕시코의 18 곳의 목적지를 포함하여 11 개국 46 개 목적지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클릭 멕시코나 항공을 포함하면 11 개국 63 개의 목적지로 취항하며, 원 월드 항공 동맹에 24 개의 목적지가 추가 됩니다.

멕시코나 항공의 가입으로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원 월드 항공 동맹의 네트워크가 현저하게 넓어지며,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취항하는 최고의 항공 그룹으로 자리매김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멕시코나 항공은 2004 년부터 현재까지 상호 코드쉐어 비행기와 상용 우대 프로그램을 적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나 항공이 이제 원 월드에 가입을 했으므로 고객들은 더 많은 선택 사항과 편리함을 누리고, 전 세계의 수 많은 노선, 더 많은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회, 라운지, 고객 서비스 등의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메리칸 항공은 편리한 달라스 포트워스 공항 1 회 경유 노선으로 멕시코 시티, 몬테레이, 과달라하라, 칸쿤, 카보 산 루카스를 포함하여 멕시코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AmericanAirlines®

BRITISH AIRWAYS

CATHAY PACIFIC

FINNAIR

IBERIA

JAL JAPAN AIRLINES

LAN

MALEV

MEXICANA

QANTAS

ROYAL JORDANIAN





UPDATE

아메리칸 항공이 중국 신규 노선 취항 날짜를 앞당깁니다.



2010년 4월, 베이징 - 시카고 노선 취항

원 월드 항공 동맹의 창립 회원사인 아메리칸 항공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카고 O'Hare 국제 공항 (ORD)과 베이징 국제 공항 (BJS) 간의 노선을 취항합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시카고 공항으로 돌아오는 첫 비행기는 2010년 4월 27일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5월 1일로 예정되었던 신규 노선 취항 일을 몇 일 앞당겼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일등석 14석, 비즈니스석 37석, 이코노미석 194석의 3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광폭 기체의 보잉 777 기종을 베이징으로 매일 운항합니다.

신규 베이징 노선은 2006년 4월에 취항을 시작한 시카고 - 상하이 푸둥 공항 (PVG) 간을 매일 논스톱으로 취항하는 노선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2010년 열릴 상하이 World EXPO 2010에 많은 여행객이 이용할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의

시카고 - 베이징 간의 신규 노선의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Flight Number	Departs	Arrives	Travel Times
AA187	ORD - 11:15 a.m.	BJS - 1:45 p.m.*	13 hours 30 minutes
AA186	BJS - 3:50 p.m.	ORD - 3:45 p.m.	12 hours 55 minutes

* 다음날 도착

2010년의 여름부터 아메리칸 항공과 자회사인 아메리칸 이글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허브 공항인 시카고 O'Hare에서 매일 출발하는 487대의 비행기로 100여개 도시를 취항하게 됩니다. 쉽고 편안한 연결 일정은 동북 지역에서 아메리칸 항공으로 중국을 여행하실 때 더욱 좋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CEO는 아메리칸 항공이 일본 항공의 장기적인 소중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확인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의장이자 CEO인 Gerard Arpey는 원 월드 내에서의 동등한 회원이며, 장기적인 소중한 동반자로서 아메리칸 항공과 원 월드는 일본 항공을 계속 유지 하는 것에 대해 노력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원 월드 이사회의 회장인 Arpey씨는 최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멕시코 항공의 원 월드 가입 기념식에서 언론 매체와 참석자 앞에서 연설 하였습니다.

“일본 항공은 원 월드의 매우 소중한 회원입니다. 원 월드와 회원들은 일본 항공과 오랫동안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으며,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힘을 것입니다.”

Arpey씨는 현재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전 세계의 항공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항공사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일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로 일본 항공은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항공의 전망과 원 월드의 전략을 유심히 관찰해 왔습니다.

일본항공이 구조 조정의 중요 단계를 실행함에 있어서 항공 동맹체를 바꿈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말할 것도 없이 동맹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위험의 변동 없이 우리가 넉넉하게 일본 항공에게 가장 의미 있는 동맹체의 가치를 전하리라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영공 개방 조약을 맺을 것을 고려하면서, Arpey씨는 일본항공이 아메리칸 항공과의 면책 관계로부터 얻는 혜택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항공이 원 월드에 잔류함으로써 동맹 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서 창출된 모든 혜택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항공이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원 월드의 중요하고 동등한 회원으로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미래를 확고히 하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고 Arpey씨가 말했습니다.